

# 승리보다 더 빛나는 마음

(『5번 레인』을 읽고)

박서은

운동회 때, 달리기를 하면 손등에 숫자 도장을 찍어 준다. 1등 도장을 받으면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아서 도장이 지워질까 봐 손을 씻을 때도 조심조심했지만 2등이나 3등 도장은 아쉽고 속상한 마음에 비누로 박박 지워 버렸다.

생각해 보니 이렇게 항상 모든 일에 점수를 매기고 순위를 정하는 것 같다. 시험을 보면 빨간 색연필로 동그라미를 그려서 채점을 하고, 올림픽 대회에서도 등수에 따라 금·은·동메달 색깔이 나누어진 다. 그뿐만 아니라 보드게임을 할 때도 점수를 계산해서 승부를 가르고, 놀이터에서 놀 때도 가위바위보로 술래를 정하니 언제든지 이겨서 1등을 하면 무조건 좋은 것이다.

이 책 『5번 레인』의 주인공 나루는 늘 1등을 놓치지 않는 한강초등학교 수영부 에이스였다. 장래 희망인 미래의 명함에 당당하게 ‘올림픽 오륜기’와 ‘황금색 금메달’을 그려 넣는 나루에게 수영은 인생의 전부였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경쟁 선수인 초희에게 1등 자리를 계속 빼앗

기게 되고 우승 후보인 1등에게 주어지는 4번 레인마저 내주고 만다. 그렇게 5번 레인으로 밀려난 나루는 자존심이 많이 상했다. 다시 초희를 이기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지만, 초희와의 시합은 쉽지 않았다.

나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서 나루가 얼마나 속상하고 화가 날지 너무 잘 이해되었다. 학교에서 글짓기 대회를 하면 거의 내가 최우수상을 많이 받아서 은근히 기대하고 있었는데, 선생님이 다른 친구의 이름을 불러 그 친구에게 최우수상 상장을 전해 주셨을 때 갑자기 숨이 턱 막히고 머리가 빙글빙글 도는 느낌이었다. 유난히 반짝거리는 초희의 수영복이 대회 규정에 어긋난 것이라고 우기는 나루의 못한 마음처럼 솔직히 나도 그 친구를 질투하고 미워하는 나쁜 마음이 나도 모르게 비죽비죽 튀어나왔다.

얼떨결에 초희의 수영복을 훑쳐 숨기게 된 나루는 악몽을 꿀 만큼 죄책감에 시달렸다. 겨우겨우 용기를 내서 초희를 찾아가 사과를 했지만, 화가 난 초희는 받아 주지 않았고 나루의 마음은 물에 젖은 솜뭉치처럼 더 무거워졌다. 결국 나루는 코치님과 친구들에게 그 사실을 고백하면서 수영 대회 결승전에서 기권하기로 한다.

하지만 그 소식을 들은 초희는 “우선 내가 너 이긴 다음에 용서해 줄게.”라고 말하며 나루에게 결승전에 꼭 나오라고 한다. 자신의 잘못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반성하는 나루의 용기와 나루가 소중한 결승의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용서하는 초희의 배려가 돋보이는 장면이었다. 어쩌면 이 사건을 계기로 비록 라이벌 관계이지만 나루와 초희가 진정한 친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좋은 예감이 들었다.

지난 2020 도쿄 올림픽 경기를 응원하면서 나는 우리나라 선수

들이 보여 준 스포츠맨십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은메달을 딴 유도 조구함 선수는 자신의 패배를 인정하면서 금메달 선수의 손을 높이 들어 축하해 주었고, 역시나 결승전에서 아쉽게 진 태권도 이다빈 선수도 상대 선수에게 환하게 웃으며 엄지손가락을 척 들어 올려 주었다.

나루처럼 나 또한 이해하기 힘들었던 코치님의 “어떻게 지느냐가 이기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이제는 조금 알 수 있을 것 같았다. 목표를 향해 노력하는 과정에 최선을 다했다면 아마 두 선수들처럼 후회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정정당당한 승부 끝에 나온 결과를 떳떳하게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훌륭한 스포츠맨십이 어찌면 승리보다 더 빛나는 마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우리 학교 학생회는 6학년 전교 회장 후보 중에서 1등이 전교 회장, 2등이 전교 부회장이 되고 5학년 전교 부회장 후보 중에서 1등이 전교 부회장이 된다. 5학년 때 나는 가장 많은 표를 받아 전교 부회장이 되었다. 그런데 6학년 때는 두 번째로 많은 표를 받아 또 다시 전교 부회장이 되었다. 똑같은 전교 부회장이지만 5학년 때는 이겨서 되는 것이고 6학년 때는 져서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느끼는 기분은 많이 달랐다. 회장이 된 친구에게 축하 인사를 건네면서 5학년 때 나를 축하해 주었던 2등 친구의 아쉽고 부러운 마음을 그제서야 비로소 이해할 수 있었다.

항상 1등만 하고 늘 이기기만 하면 참 좋겠지만 아마 그런 사람은 없을 것이다. 어떤 날은 이길 수도, 또 어떤 날은 질 수도 있는 승부의 세계는 언제나 냉정하다. 하지만 승자는 위로로, 패자는 축하로

서로를 존중하고 격려한다면 좀 더 아름답고 따뜻한 세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나루와 초희도 분명히 그렇게 선의의 경쟁을 하면서 멋진 우정을 나누게 될 거라고 믿는다.

오늘도 수영장에서 팔다리를 쪽쪽 뺏으면서 수영 연습을 하고 있을 나루와 초희, 그리고 수영부 친구들에게 힘찬 응원의 박수를 보내며 나도 나만의 터치 패드를 향해 열심히 달려가야겠다.

내가 이겼을 때는 내게 진 친구를 위로할 줄 알고, 내가 졌을 때는 나를 이긴 친구를 축하할 줄 아는 ‘승리보다 더 빛나는 마음’을 기억하면서 정정당당하게 파이팅!